



The Reunified Korean Economy

月刊

統一經濟

1995. 4 통권 제4호

現代經濟社會研究院

권 두 언 / 통일의 이상과 현실 / 이흥영 2

포 럽

김정일의 경제노선과 향후 전망 / 장달중 4

시 사 특 집

김정일체제의 경제정책 전망

- 김정일 정권의 정책 전망 / 서재진 38
- 김정일의 경제분야 장악과정과 주요 인맥 / 유영구 52
- 김정일체제의 대외경제정책 전망 / 오병훈 62

연 구 논 단

- 해외 전문가 기고 : 북한의 외교정책과 일본 / 서대숙 72
- 밀월과 소원의 중국-북한관계 / 김희연 85
- 북한 경제정책의 기본틀과 그 결과 / 박형중 97

이달의 초점

한국형 경수로 양보할 수 없다 / 정종문 112

통일다리

남북 문화·예술 교류 - 접점과 평행선 II / 김경웅 116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북한의 '대안(大安) 사업체계'에 대한 소고 / 이선태 123

통일경제노트

남북한 경제통합의 필요자본량 추정 / 최광석 140

자료 : 1994년도 하반기 북한경제 동향 149

통일의 이상과 현실

이홍영 / 미 캘리포니아대 정치학과 교수, 한국문제연구소 소장

역사는 한 지도자가 처한 역사적 상황하에서 어떻게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조정하여 현실을 이상적인 상태로 인도하였었나를 위대한 혁명가나 정치가를 가늠하는 척도로 쓰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실현에 필요한 여건의 정확한 분석과 현실의 제한성에 대한 냉철한 판단은 이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긴급하게 요구된다. 통일전망이 예전 어느 때보다 밝아 보이는 현재, 한국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원대한 이상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능력뿐 아니라 현국제정세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치지도자이다. 그러한 지도자는 특수층 여론에 좌우되지 않으며, 다양한 국민의 인식과 여론을 선도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관된 정책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한국은 5천년 역사에 전례가 없는 축복 받은 순간에 있다. 괄목한 경제발전으로 국민의 개인소득은 곧 1만 달러 선을 넘을 것이며, 지난 몇 년간 성취한 민주화는 한국의 위상을 높여주며,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운신의 폭은

대단히 넓다. 더욱이 현재는 19세기 아편전쟁 이후 동서양의 관계가 서양위주로 움직였던 150여년 간의 역사의 한장이 끝나고, 힘의 축이 아태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시점이다. 상승하는 동북아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은 서서히 형성되어 가는 신국제질서 형성에 한국의 역할을 증대시켜 주고 있다. 더욱이 남북이 통일되면 한민족 근대사의 비극은 끝날 뿐만 아니라 남북한을 합한 경제력과 국방력 및 문화의 힘은 점차 세계화되어 가는 인류사회에 중대한 공헌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제약은 냉엄하다. 북한이 보는 국제정세나 그것에 근거한 전략 및 외교 목표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그들은 공식적으로는 통일을 주장하나 그들의 실질적 외교목표는 체제유지와 생존에 있다는 것은 분명해진다. 북한체제에 대한 위협은 미국이나 일본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오며, 그 위협은 한국 정부의 정책에서보다는 남북간 힘의 불균형에

서 기인한다. 따라서 한국측이 통일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문제로 흡수통일을 반대하고,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는 장기적인 통일 정책을 내세워도 그것이 북한 집권자를 안심시키기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남쪽과의 인적왕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의 체제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한국 정부와의 공식적인 접촉을 최대한으로 피하고 있다.

반면 북한지도층은 현재의 극심한 경제곤란과 외교적인 고립을 탈피하지 않고서는 체제보전의 가능성마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극히 제한된 국력과 많은 체제상의 모순을 안고 있는 북한에게는 주변열강의 이해를 조작하여 자국의 입지를 개선하는 전략 외에는 다른 선택의 길이 없다.

핵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지난 몇 년간의 북한 외교는 불합리적인 합리성(rationality of irrationality)이라는 개념으로 집약될 수 있겠다. 이것은 북한의 외교정책이 기계처럼 확일적인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개념은 단지 북한 정권 내에서 정부원의 입장은 당이나 군부의 입장과 자주 상충되더라도 의견이 다를 때에는 최고지도자가 체제유지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하여 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북한의 핵문제는 북한에 별로 관심이 없던 미국의 주의를 끌고 북미협상을 시작하게 하여

중국에는 북미 협정으로 이어져서 북미 외교관계 수립까지 연결될 가능성을 높여주었다. 북한은 경제제재와 같은 강한 압력에 대해서는 전쟁이라도 불사한다는 최강경책으로 대응하여 한미협력의 한계성을 노출시키고 그러한 압력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또 한편 북한은 북미간에 과거 문제 외에는 아무런 전략이해의 충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장래 동북아에서 미국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여 왔다. 또한 일본과의 회담에서는 미일의 경쟁과 북일관계가 일본에 줄 수 있는 정치적·전략적 이점을 활용하여 왔다.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정부와 민간단체를 분리시키며 민간단체 중에서 기업과 사회단체뿐 아니라 기업들간에 경쟁하게 만드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있다. 중국은 처음부터 2개의 한국정책을 추구하여 왔으며, 한반도의 급격한 변화—북한 체제의 몰락을 포함하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왔다. 간단히 재언하면 북한은 한·미·일 공조체제에서 없을 수 없는 각국간의 미묘한 이해 차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왔다.

통일이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북한 외교전략의 비합리적인 합리성을 인정하고 한반도에 열킨 각국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의 우방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북한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북한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확인하여야 하겠다.